

「武士道」 뒤집어 보기(其三)

정 장 식*

(e-mail: joshua@cju.ac.kr)

목 차

- 一. 美化된 「武士道」
 - 二. 本論
 - 1. 殉死 - (1) 『阿部一族』 (2) 노기(乃木)장군의 순사
 - 2. 復讐 - (1) 무사의 복수 (2) 『忠臣蔵』
 - 3. 割腹 - (1) 「武士道」와 「하라기리(腹切)」 (2) 할복자살 · 참수(斬首)
 - 三. 結論
-

一. 美化된 「武士道」

1899년 12월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1862-1933)는 일본인의 도덕관념과 일본정신을 서양에 알리려고 『Bushido, the Soul of Japan』을 미국에서 출판하였다. 여기서 新渡戸稲造는, “武士道야말로 일본정신(Bushido, the Soul of Japan)”이며 도덕관념이라 강조하였다. 당시에 小国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였으므로, 서양은 「武士道」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武士道 · 武士(사무라이)”라는 말은 일본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태평양전쟁에서 자살특공대(神風特攻隊)도 무사의 典型처럼 여겨졌다.

新渡戸稲造는 『武士道』에서, “무사는 개인보다 국가를 소중히 여기며”(제9장. 忠義), “멋지게 죽는 용기를 보인 무사의 자살”을 찬양하였고(제12장. 切腹), “칼은 무사의 영혼”(제13장)이라고 자랑하며, 무사는 서양의 騎士와 같이 도덕적으로도 뛰어나다며 신흥국의 문화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新渡戸稲造는 「武士道」의 덕목인 “義 勇 仁 禮 誠 名譽 忠義”가 바로 ‘일본

* 清州大学校 日文科, 日本学

정신'인 「大和魂」(제15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가 말한 「武士道」는 유교의 다양한 덕목을 가져다가 일본 정서에 맞게 열거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武士道」는 「大和魂」의 理想이었지, 과거의 무가 사상은 아니었다.¹⁾

이러한 홍보로 「武士道」는 과장 되었고, 아울러 「武士道」의 실체는 歪曲 되었다. 또 「아꼬(赤穂)浪人들」의 복수가 『忠臣蔵』으로 劇化되어 美談처럼 전해지고 있으나, 그들의 복수가 忠義와 武士道로 꾸며지는 과정에서 무사의 폭력적 광기에 과장과 왜곡이 더해졌다. 또한 殉死(殉死)와 割腹(切腹)도 武士道の 至高한 표현으로 美化되었다. 本論에서는 「武士道」에서 과장된 殉死 · 復讐 · 割腹(切腹)의 이면을 알아보고, 「武士道」의 실체와 역사 ·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二. 本論

1. 殉死(殉死)

武士가 죽은 主君에 충의를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殉死였다. 그 예는 중세 무사 사회부터 있었는데, 주군이 전사하였거나 病死하였을 때, 주군을 잃은 무사들이 주군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경우였다.

徳川幕府에 들어와 殉死가 무사 사회의 관행처럼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607년 徳川家康의 4남(松平忠吉)이 28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였을 때 가신 4명이 殉死하자, 그들은 무사의 모범처럼 떠받들어졌다.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徳川家康의 2남(結城秀康)도 34세로 죽자, 그의 가신(本多富正)도 주군을 따라 죽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徳川家康과 秀忠은 本多富正을 불러, 만약 주군을 따라 죽으면 家名을 끊겠다고 엄하게 단속하며 殉死를 금하였다. 그 후에도 주군이 죽을 때마다 가신들의 殉死가 이어진 것은, 殉死자는 주군 묘역에 장사지내지거나 자손에게 祿봉을 더해주는 혜택이 주어져, 殉死자 반열에 오르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으니, 혜택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겠지만 殉死는 관행처럼 여겨져 서로 숫자를 다투듯 번져나갔다.

1651년 4월 徳川家康의 손자 家光(1604-51)이 48세의 나이로 죽자, 충애를 받았던 측근들이 속속 뒤를 따라 殉死하였으니, 막부는 殉死를 금하며 구시대 풍조를 없애려고 하였으나, 관행처럼 굳어진 殉死를 막기는 쉽지 않았다. 우선

1) 정장식. 「武士道」 뒤집어보기(其一). 일본문화학보 35집. 한국일본문화학회 「武士道」 뒤집어보기(其二). 일본문화연구 3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순사를 결행하는 무사들의 忠義는 알겠으나, 측근들이 순사하면 藩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잃게 됨으로 藩의 앞날이 걱정이었다.

이렇게 순사가 관행처럼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 우선 忠義보다 주변에 대한 체면이나 자손이 받을 혜택을 생각하여 순사가 늘어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4대 장군(家綱)은 3대 장군(家光) 가신들의 순사가 잊혀질 1663년 5월, 오랜 관행을 끊으려고 「武家諸法度」에 순사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혁신을 단행하였으니, 순사는 끊기 어려운 폐습이었던 모양이다.

(1) 『阿部一族』

森鷗外(1862-1922)의 소설 『阿部一族』은 1643년 2월 熊本城 밑의 阿部 本家에서 阿部一族이 藩의 토벌군에게 항전하다가 全滅한 史實을 바탕으로, 순사를 둘러싼 무사 사회의 갈등과 여기서 비롯된 阿部一族의 멸족을 森鷗外의 시각으로 써놓았다.

熊本城 藩主(細川忠利)가 2년 전 죽었을 때 19명의 가신이 순사하였다. 그런데 藩主를 가까이서 모시던 阿部는 허락도 받지 않고 순사하였으므로 그의 죽음은 ‘개죽음’으로 간주되었다. 무사의 일신은 주군의 것이므로, 전장에서조차 주군의 허락이 없는 상황에서 죽는 것은 ‘개죽음’이었다. 무사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었지만, 명분 없는 죽음은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무사라고 아무나 순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공적도 없고 주군의 은혜도 입지 않은 자가 허락 없이 순사하면 그것은 ‘개죽음’이었다. 주군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군이 죽으면 반드시 순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나, 주변에서 당연히 순사할 것으로 믿었기에 측근들은 주군에게 순사를 간청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주군이 죽은 후 阿部가 순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며 따돌리는 분위기가 돌았다. 阿部는 그 분위기를 분하게 여기며, 자식들 앞에서 할복하며 자신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찌하였거나 阿部の 묘는 다른 순사자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주변에서 阿部一族을 보는 눈은 냉담하였다. 다른 순사자들 후손은 세습이나 녹봉의 가증으로 ‘가문의 영광’이 되었으나, 阿部の 장남은 세습도 못하는 냉정한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처우에 환멸을 느낀 阿部の 장남은 상투를 자르며 무사 신분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자, 藩은 阿部가 주군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잡범들처럼 교수형에 처하였다. 무사의 처형은 할복이 원칙인데, 藩은 전혀 무사의 명예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阿部一族은 무사로서 체면을 잃게 되자, 阿部一族은 本家에 모여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죽기로 맹세하였다. 阿部一族이 명예를 위해 저항하자 藩은 토벌군으로 진압하였고, 阿部一族은 완강히

저항하다가 모두 죽었다.

森鷗外가 이 소설을 발표한 것은 1912년 乃木 장군 부부가 明治천황의 뒤를 따라 순사한 다음 해였으므로, 순사에 대한 森鷗外의 생각이 잘 묘사되었다. 혹자는 이 소설이 武士의 냉정한 마음을 묘사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작자의 의도를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²⁾ 森鷗外가 보기에, 순사를 둘러싼 무사 사회의 분위기는 음습한 異常 심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주군의 火葬에 때맞추어, 주군이 아끼던 매 두 마리가 우물 속으로 처박혀 순사하였다는 허황된 소문을 시작으로, 주군의 은혜를 입은 자는 모두 순사해야 한다는 異常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주군을 가까이 모셨던 阿部는 주군이 병석에 있을 때 순사를 간청하였으나, 주군은 후사를 부탁하며 순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순사하지 못한 阿部를 보고, 주변에서는 은혜를 모른다거나, 비겁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다. 한편으로는 순사자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으니, 순사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비겁자이거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갔다. 이렇게 음습한 분위기에 낙담한 阿部는, 주군의 허락 없는 순사는 ‘개죽음’인 것을 알면서도 할복하였다. 이것은 순사라기보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무리들에게 할복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분사(憤死)였다. 아버지(阿部)의 분사로 촉발된 阿部一族의 저항은 비극적 종말을 각오한 것이었다. 결국 藩은 阿部一族을 토벌하고 시신을 조사해 보니, “阿部 本家 옆집에 살며 친분이 있던 쓰카모토의 창에 찔린 야고베(阿部の 2남)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 상처보다 멋이 있었기 때문에 쓰카모토는 체면을 세울 수 있었다”며 소설은 끝났다.³⁾

1912년 9월에 明治천황을 따라 乃木 장군 부부가 순사한 충격이 남아있던 1913년에, 森鷗外는 『阿部一族』을 통하여 무사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순사는 무사의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 가려진 무사 문화의 허식을 묘사하였다. 주군에 대한 충의로 순사하는 「義腹」,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순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잡한 사정과 분위기 때문에 죽는 「論腹」, 유족에 대한 우대를 염두에 둔 「商腹」라는 단어가 있다.⁴⁾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유형의 순사도 이 단어들에 꿰맞출 수 있었으니, 森鷗外는 순사를 둘러싼 무사 사회의 갈등을 통하여 「고전적 사무라이」였던 乃木 장군의 순사를 접하고 나름대로의 회답을 찾으려고 모색한 것이 아니었을까?

(2) 노기(乃木) 장군의 순사

1912년(明治39) 7월 30일 明治천황이 死去하고, 장례가 끝나는 9월 13일 저

2) 高橋富雄(1986). 『武士道の歴史』二. 新人物往来社. p.139

3) 노재명 역(2006). 『阿部一族』. 북스토리. p.83

4) 高橋富雄(1986). 『武士道の歴史』二. 新人物往来社. p.143

년에 「러일전쟁의 영웅」으로 추앙 받던 노기(乃木希典:1849-1912) 육군 대장 부부가 자택에서 순사하였다. 전통적으로 순사에서는 「介錯」라는 측근이 할복자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그는 자신의 軍刀로 혼자 할복을 단행하였다. 일본의 육군 대장이 연출한 중세 사무라이 같은 순사는 모두를 놀라게 하였고, 또 그가 旅順 要塞 공략자라는 명성 때문에 세계로 알려졌다. 왕실의 존엄과 귀족의 권위가 사라져가던 때에, 그의 고전적이고 극적인 순사는 귀족의 충성심에 향수를 불러일으켰으며 찬사를 받았다. 명성 높은 군인이며 귀족의 순사이었기에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의 명성과 순사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⁵⁾

그는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長州 출신에 명치유신의 元勳을 많이 배출한 吉田松陰 門下와 줄이 닿아, 일개 서생에서 일약 육군 소좌로 임명되었다. 그는 곧 사쓰마(薩摩) 叛軍을 진압하는 「西南戰爭」에 나갔으나, 반군에게 軍旗를 빼앗겼다. 혼란과 전투경험이 부족한 정부군을 지휘하여, 당시 最強을 자랑하던 사쓰마(薩摩) 반군과 싸운 것이니, 이것은 지휘관의 능력보다 군대 조직상의 문제였다. 그러나 乃木는 실책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부상으로 누워있던 야전병원을 탈출하여 전선으로 달려갔고, 산속에서 단식하며 죽으려고 하여, 이런 순진한 모습이 도리어 上部의 호감을 얻었고, 육군의 핵심인 長州 藩閥의 덕을 많이 보는 계기가 되었다.

旧일본 육군에서는 부대의 상징인 군기는 이상하게 신성시 되어, 마치 깃발이 천황과 국가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군기를 빼앗긴 부대장이 죽음으로 사죄하려 했다는 實例를 乃木가 남겨, 이 사건을 계기로 군기의 존엄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나, 군기 사건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다닌 자책의 감정이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 먼저 군기를 빼앗긴 사죄의 마음을 적었고, 그간의 과분한 「皇恩」에 感恩하였다. 초급 지휘관 때의 오점인 군기 사건은 평생 마음의 짐이었으니, 그는 지극히 감상적이고 고전적인 군인이었다.

「西南戰爭」의 격전지를 둘러본 明治천황도 乃木를 중세 사무라이 같은 충직한 군인으로 기억하고, 친히 和歌를 지어 하사하였으니, 군기 사건은 無名의 장교를 유명하게 만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곧 중좌로 진급하였고, 37세에 육군 소장이 되어,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38세에 독일 참모본부 유학으로 최신 군사학을 배웠으니, 그는 運이 좋은 군인이었다.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후, 그는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듯 잘 때도 군복을 벗지 않았다니, 얼마나 외형이나 정신에 집착하였는지 알 수 있겠다.

1904년(明治 37) 2월, 일본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해군은 旅順 외항을

5) 司馬遼太郎. 『殉死』(1967.文芸春秋) / 『坂の上の雲』(1999. 文芸春秋)에서 乃木 관계 부분을 참고하였다.

봉쇄하였다. 旅順 외항을 봉쇄한 해군은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의 위협성을 강조하며, 여순 공략을 육군에 요청하였다. 乃木는 개전 당시에는 야전사령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군내부의 의견으로 인선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다가 여순 공략이 입안되었을 때, 乃木가 청일전쟁 때 북양함대 근거지였던 여순을 공략한 여단장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육군 중장인 乃木에게 여순 공략을 맡은 제3군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만주 진출에 눈독을 들이던 러시아는, 일본이 요동반도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三國干涉」으로 훼방을 놓고는, 여순항을租借하여 극동으로 진출하는 要塞을 건설하였다. 청나라 때와 다르게 러시아가 현대적인 요새로 만든 여순항을, 청일전쟁 때 여순 함락에 참전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乃木에게 여순 공략을 맡긴 육군의 안일한 人選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요새는 보병의 돌격전으로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 공병과 포병의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함락할 수 있는 구조물인데, 군 수뇌부는 明治 초기에 사용하던 구식 대포로 러시아의 강고한 보루를 격파하려 하였으니, 이러한 계란으로 바위 치기 작전도 불행의 시작이었다. 여순 공략 작전을 수행할 乃木의 참모장으로, 육군 소장 이지치(伊地知 幸介)가 포병 출신이며 청일전쟁 때 거기서 싸웠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보냈으니, 이것도 잘못이었다.

여순 요새 공략전은 해군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므로, 해군은 중포대 제공을 자원하였으나, 포병 출신 참모장 이지치(伊地知 幸介)는 청일전쟁 경험으로 여순 요새를 가볍게 보고 거절하였다. 일본 육군에서 작전은 참모장이 입안하였고, 사령관의 통제는 상징적이었으나, 최종 책임은 사령관이 지는 것이었다. 참모장의 작전은 여순을 둘러싼 요새를 보병이 뚫고 들어가는 중앙돌파작전이었는데, 이것도 무모한 돌파작전이었다.

乃木의 제3군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여순을 함락할 수 있으리라 쉽게 보았으나, 함락에 150여 일 매달렸고 6만여 명이 전사하는 苦戰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苦戰을 해군은 초조하게 지켜보았고, 大本營과 현지 사령관도 계속 독려하였으나, 제3군은 작전을 바꾸려 하지 않아, 드디어 乃木 파면안이 건의되었다. 만주총군 사령관 오오야마(大山巖)도 長州 출신이라, 전투 중에 사령관을 바꾸면 일본이 고전한다는 선전거리가 되어, 外債를 빌려서 전쟁하는 판국에 대외 신용이 떨어진다고 파면안을 묵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해군은 203고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여순항 북서쪽 외곽에 위치한 203고지는 비교적 수비가 약하여, 이곳을 공략하면 관측병이 여순항을 내려다보며 정박 중인 함대를 포격할 수 있었다. 참모장은 해군의 203고지 공격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해군은 大本營을 통하여 작전 변경을 설득하였고, 결국 乃木와 친한 만주총군 총참모장 고타마(児玉源太郎)가 직접 현지로

가서 지휘하여 203고지 공격이 개시되었다.

해군 중포와 일본에서 실어온 중포 지원을 받아 하루 만에 고지를 점령하였고, 곧 203고지 정상에 오른 관측병의 유도로 중포사격이 시작되어 항구에 정박 중인 러시아함대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포격을 당하여 침몰하였다. 이렇게 20여 일을 버티다가 러시아는 항복을 제의하였고, 드디어 1905년 1월 5일 유명한 「水師營 會見」이 있었다. 이 때 乃木는 적장의 항복 모습을 촬영하려는 미국 기자의 요청을 거절하여 무사도의 度量을 보여주니, 乃木는 사무라이의 전형처럼 세계에 알려졌고, 「여순 攻略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쟁을 하면 영웅을 만들어 국민단합에 이용하였는데, 해군에서는 「일본해전의 영웅」으로 東郷平八郎(1847-1934)을 내세웠고, 육군은 「水師營 會見」으로 알려진 乃木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무모한 작전으로 여순 공략전은 일본군의 시산시해를 이루었지만, 203고지 점령으로 뜻밖에 자신이 「여순 攻略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사실에 乃木는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乃木는 두 아들을 러일전쟁의 제물로 바쳤으나, 자신의 실책으로 많은 희생을 치른 것에 가슴 아파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전장에서 죽기를 바라며, 전선 시찰을 핑계로 일부러 몸을 노출하여 적탄을 맞으려 하였다. 乃木의 이러한 異常 행동을 감지한 부관의 주요 업무가 乃木를 감시하는 것이었고, 전쟁 후반에 전장으로 떠나는 乃木의 신임 부관에게 陸相(寺内正毅)은 “귀관의 임무는 乃木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다짐하였다니, 乃木의 실책과 성격은 이미 군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전쟁 후반의 어려운 상황을 打開할 능력이 없었던 乃木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전선에서 사무라이답게 죽어서 자신의 실책을 만회하고 싶었을 것이다.

여순 함락의 결정적 계기가 된 203고지 공격은 자신의 공이 아니었는데, 「水師營 會見」에 임하며 영웅으로 부각되었으니, 그는 더욱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여순 함락 후 奉天으로 진격할 때도 乃木가 單騎로 전선 시찰에 나서려 하자, 참모들이 극력 제지한 것도 戰死로 꾸민 자살을 염려한 것이었다. 이렇게 乃木는 자신의 능력이나 불운에 절망하면 자살 충동을 느꼈고, 실책과 치욕을 죽음으로 만회 하는 사무라이의 죽음에 끝났다. 전장에서 무사답게 죽지 못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와, “육군대장, 從二位, 伯爵, 功一級, 군사 참의관, 학습원장, 宮内省御用掛”같은 화려한 명예를 얻었으나, 마음에 빚을 안고 영웅으로 추앙 받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江戸時代의 古学派 儒学者며 兵学者였던 山鹿素行(1622-85)가 쓴 尊皇思想의 역사서 『中朝事實』를 읽으며 求道者の 길을 추구하였다. 『中朝事實』은 山鹿素行가 赤穂藩 유배 중에 지은 것으로, 中華사상을 반론하며 万世一系の 皇統이 다스리는 일본이야말로 「中朝(中

華)」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월한 일본의 역사와 国体”를 유지한 데는, 정치에 徳과 智가 있었고 특히 무사의 勇이 있음으로 일본이야말로 「中朝(中華)」라고 할 수 있었으니, 일본의 특징은 武士道에 있다는 것이었다.

江戸時代 무사도는 무사와 유교 도덕을 결합시키려는 것이었으며, 山鹿素行의 士道論이 첫 시도였다. 한편 山本常朝(1659-1719)의 『葉隠』(1716)에서 “무사도란 곧 죽는 것을 찾는 것”이라며, 무사도의 진수는 죽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江戸時代 무사도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武士道는 미덕으로 여겨졌기에, 그는 무사답게 戰場에서 언제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전전에 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사답게 戰死하여 명예를 만회할 수 없었던 그가 明治천황을 따라 중세 사무라이 같이 순사의 길을 택하여, 軍旗 사건과 여순 공략 실책에 따른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2. 복수(復讐)

(1) 무사의 복수

중세 무사가 전투에 집착한 것은 명예를 얻어 領地를 받으려는 打算的인 행동이었으며, 전투에서 비겁하게 행동하면 불명예와 함께 영지를 잃었다. 織田信長(1534-82)가 天下統一을 앞두고 京都에서 明智光秀(1528-1582)의 모반(本能寺の変)으로 죽었을 때, 中国地方 平定에 나가있던 豊臣秀吉는 급보를 접하자 재빨리 군사를 돌려서 明智光秀를 토벌하고 主君의 원수를 갚아, 사실상 織田信長の 후계자로 떠올라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徳川家康을 누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군의 복수도 무사에게 명예와 권력을 보장하였으니, 복수는 무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무사가 명예나 체면에 도전 받았을 때 만회하는 길은 복수밖에 없었으니, 복수는 법적인 권리 이전에 무사의 행동규범으로 인식되었다. 徳川막부 이후 상실감에 휩싸인 많은 무사들이, 그간 자행되었던 폭력의 정당성과 명예를 중시하는 전통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폭력으로 명예를 지키려는 행동이 많았다. 막부는 戦国시대 관습법(喧嘩兩成敗)으로 무사의 개인적인 싸움을 규제하였으나, 일정한 법적 기준이 없었기에 시행착오가 많았다.⁶⁾

막부나 藩은 원칙적으로 무사의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였으나, 무례한 백성을 죽이거나, 不貞한 姦夫를 죽이거나, 정식으로 신고한 복수는 명예를 위한 복수이었기에, 살인을 범하여도 처벌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을 존속시킨 것은, 무

6) 「喧嘩兩成敗」: 중세에 무사들이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던 방식을 금지한 法理念으로, 싸움의 원인을 묻지 않고 양측에 똑같이 형벌을 내리는 규정. 徳川막부시대에도 관습법으로 남아 있었다.

사의 명예는 폭력으로 유지된다는 전통을 막부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부가 공식적으로 복수를 허가한 것은 직계 父母나 兄이 피살되었거나 범인이 도피하여 처벌을 피했을 때뿐이었다.

부모나 형이 살해되었다고 국가 권력이 법으로 복수를 대신하는 것은 무사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피해자의 직계가 직접 복수하러 나서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찍히는 사회 분위기였기에, 복수를 원하는 무사가 관청에 신고하고 복수에 나서면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 이러한 원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무사는 막부 권력의 골격이었으니, 무사의 공격적인 명예 전통을 무시하면 막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막부는, 무사의 명예를 위한 폭력을 통제하고, 무사 사회의 폭력적인 구조를 순화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정치·사회적인 변화보다 무사 사회의 변화를 서두를 수 없었기에, 복수를 금하는 확실한 규정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모욕과 도전, 그리고 폭력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정해진 패턴이었던 것은, 힘이라는 가변적 요소 위에 성립된 무사의 명예는 그만큼 상처받거나 도전받기 쉬운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래서 무사는 매일 명예가 시험 받는다는 긴장 속에 살았으며, 폐쇄적이고 경쟁적인 위계질서와 이를 주시하는 주변 시선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에, 긴장감이 명예문화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막부 권력이 안정됨에 따라 무사의 폭력은 규제되었지만, 인간 본성인 복수와 무사의 명예 문화는 살아있어서, 시대 변화에 따라 무사의 존재감이 점차 시들어 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무사의 복수는 픽션으로라도 듣고 싶은 로망으로 남게 되었다.

(2) 『忠臣蔵』

일본의 ‘国民劇’이라 할 수 있는 『忠臣蔵』은 복수 과정의 스텔과 영웅적인 결말로 오늘날에도 많은 관객이 모인다. 『忠臣蔵』는 ‘복수극’이었으며 ‘충신 이야기’도 되었고, 浪人들이 막부 권력에 저항한 ‘史劇’으로 볼 수도 있었다. 사건 얼마 후부터 이야기는 막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변형된 연극이나 픽션으로 상연되었는데, 이야기는 복수로 꾸며졌다. 『忠臣蔵』의 사건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만, 47명의 사무라이들의 복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기에는 무사 문화의 변질된 모습뿐만 아니라 무사 문화의 가려진 뒷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다.⁷⁾

1701년(元禄14) 3월, 江戸城에서 칙사를 응접하는 막부의 중요한 의식이 있

7) 『忠臣蔵』은 森村誠一 『家臣』 [최재우 역(1994), 『가신』, 청림출판] 참고

는 날에, 赤穂藩의 젊은 영주 아사노(淺野)는 의식을 감독하는 高家 기라(吉良)를 칼로 찼다.⁸⁾ 기라(吉良)는 경상을 입었지만, 江戸城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곧 장군의 분노를 사서, 아사노(淺野)는 그날로 할복을 명받았다. 아울러 赤穂藩의 영지는 몰수되었고, 영주 집안은 공식적으로 단절되었으며, 赤穂藩의 가신은 모두 浪人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赤穂藩의 가신들은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막부가 赤穂藩의 가게 존속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희망을 잃은 赤穂藩의 47명의 사무라이들은 마침내 1702년 12월 14일 새벽, 기라(吉良) 저택에 난입하여 목을 따서 주군 墓前에 바친다. 사무라이들은 주군이 왜 칼부림을 하였는지, 무엇 때문에 사건이 났는지도 잘 모른 채 그저 한풀이로 복수를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개 영주가 일으킨 사건 때문에 40여 명의 가신이 목숨 바쳐 복수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무언가 있었을 것이다.

평화시대에 浪人들의 집단 복수극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지만, 이들의 복수는 너무나 완벽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두 달 후에 46명의 사무라이들은 명예롭게 할복하였지만, 곧 이 복수극은 연극이나 픽션으로 꾸며졌고, 무대에서 그들은 일약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 받게 되었으니, 이것은 막부의 대응과 무사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먼저 왜 젊은 영주 淺野가 흥분하여 吉良를 칼로 찼는지는 여러 가지 억측이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사건이 원한 관계인지, 淺野의 성격 때문인지, 吉良의 잘못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져서 사건이 났을 것이다. 吉良가 淺野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님으로 淺野의 원수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吉良는 淺野의 칼부림에 다쳤고, 淺野는 国法에 따라 할복한 것이다. 두 사람이 싸운 것이라면 전통(喧嘩兩成敗論)에 따라 양쪽 모두 처벌 받아야 마땅하나, 싸움은 淺野가 먼저 걸었고 吉良는 일방적으로 당한 입장이었으므로 「喧嘩兩成敗論」도 성립되지 않는다.

단지 淺野가 吉良를 못 죽인 것은 무사로서 준비가 부족한 「후카쿠(不覺: 부주의. 태만)」이었기에 수치스럽지만, 막부의 불공평한 처벌이 문제였다. 淺野가신들의 생각은, 싸움은 淺野와 吉良의 개인적인 감정싸움임으로, 「喧嘩兩成敗」 원칙에 따라 막부는 양쪽을 처벌해야 되는데, 淺野에게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당일 할복’이라는 처벌을 내렸으니 불공평하였다. 또 그들이 탄원하였던 淺野家の 유지와 명예 회복도 막부가 허락하지 않고, 淺野 가신들을 浪人으로 전락시켰으니, 그들은 막다른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이 청하였던 「이에(家)」의 명예 회복은 그들의 일자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명예이었기에 그들은 합법적인 수단을 끈질기게 모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부에는

8) 高家は 朝廷이나 公家와 교섭하는 막부 관직임으로 石高는 大名보다 낮았지만 官位는 높았다.

이러한 갈등을 법으로 판결하는 기능이나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또한 법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막부의 불공평한 처사로 浪人으로 전락한 淺野 가신들에게는 합법적인 명예 회복마저 막혀 살아갈 방법이 없었으니, 이판사판으로 몰린 바에야 불법이지만 전통적 방법인 복수로 명예를 회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군을 가까이서 모시던 무사들이야 진지한 충의가 있었겠지만, 47명 사무라이 모두가 주군에게 강한 충의를 느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주군의 충동적이고 분별없는 칼부림으로 졸지에 거리로 쫓겨나 낭인으로 전락하였으니, 주군의 명예와 淺野家の 존속에 강한 애정이나 충의를 느꼈다기보다, 자신들의 불명예와 이판사판의 처지가 복수심에 불을 지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러한 결과를 불러온 주군이 원망스럽고, 또 가혹하고 불공평한 처벌을 내린 막부가 미운 것이지, 吉良가 칼부림의 원인 제공자라는 뚜렷한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주군은 이미 죽었고, 막부는 너무나 거대한 조직이라 덤벼들 수가 없었으니, 막부의 처벌도 받지 않고 경사만 입은 吉良에 대한 분노와 명예 회복이라는 마지막 소망이 복수라는 행동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복수 감정 폭발에 가장 큰 요인은 개인의 명예의식이었다. 淺野家가 접수되자 급진적인 일부 사무라이들은 「이치붕(一分: 일신의 면목)」 회복을 주장하며, 즉각 막부에 대한 반발이나 吉良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였다. 「이치붕(一分)」은 무사 개인의 자존심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명예가 없이는 「이에(家)」의 명예도 없다는 것이었다. 주군의 적은 자신들의 적인데, 吉良를 그대로 두면 주군의 욕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들의 치욕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복수의 지휘자인 大石은 「이에(家)」의 명예가 우선이라며 淺野家の 명예 회복을 청원하였으나, 이것이 불가능하자 「이치붕(一分)」 회복을 위하여 복수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치붕(一分)」이 개인의 명예를 가리킨다면, 「히토마에(人前)」와 「세켄테이(世間體)」는 공동체의 명예를 의미한다. 급진과 사무라이들은 淺野家の 「히토마에(人前)」와 「세켄테이(世間體)」를 생각하여 吉良를 처치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대의명분은 먼저 주군에 대한 충의를 내걸었으나,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명예와 공동체의 명예를 먼저 의식하였다. 급진과 사무라이나 신중하게 복수를 준비한 大石가 자신과 「이에(家)」의 명예를 의식하였다는 데는 일맥상통하나, 복수의 중심에는 주군에 대한 충의보다 개인과 집단의 명예가 우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복수극이 유명해지면서, 이야기는 忠義를 키워드로 일본인이 좋아하는 여러 요소들을 집대성하여, 충신들의 이야기라는 『忠臣蔵』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미화되고 세련되어졌다. 사무라이를 모두

「赤穂義士」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복수극 이면에는 주군에 대한 충의보다 개인의 명예가 우선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忠臣蔵』에 그려진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인 「赤穂事件」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소위 ‘忠臣’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赤穂義士」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 이들의 신분과 「石高」 등이 자세히 밝혀지고 있다.⁹⁾ 47명의 「赤穂義士」 중에는 藩으로부터 「知行地」를 받지 못하고 쌀로 녹봉을 받으며, 주군의 은혜를 받을 신분이나 처지에 있지 않았던 하급무사가 1/3 이상 들어있었는데, 이들을 「かぶき者」로 보고 있다. “복수는 연장자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위할 때에만 정당한 것”(앞의 책 『武士道』 제12장 할복)이라고 하였는데, 이들 중에 많은 수의 「かぶき者」가 주군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복수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⁰⁾

이들 「かぶき者」 기질은 동료들과 연대를 중요시하며, 용기를 과시하기 좋아했고, 질서에 얽매이기 싫어하며, ‘자신들의 무사도’를 위해서는 목숨도 가볍게 여겼다. 이들의 난폭한 행동이나 반항적인 태도는, 그렇게 해도 잃을 것이 없다는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かぶき者」 기질은 戰場이 상존하던 구시대의 유물이었으나, 직장마저 잃고 울분을 폭발시켜줄 기폭제를 찾던 하급무사들은 복수에 목숨을 걸어도 잃을 것이 없었기에, 마침 大石이 내건 ‘忠義’라는 대의명분이 뇌관이 되어 吉良쪽으로 폭발하였다. 여기에 「武士道」라는 거창한 이념이나 ‘忠臣’이라는 유교 윤리로 이들을 이상화한 것은, 후세에 일본의 ‘国民劇’인 『忠臣蔵』으로 변모하면서 복수극을 영웅적인 결말로 미화시키려는 윤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忠臣蔵』을 테마로 한 드라마나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赤穂義士」들이 吉良의 首級을 싸들고 아침 거리를 행진하여 主君 墓前に 바치러 가는 광경을 보고 江戸 시민들이 환호하였는데, 이것도 극적인 효과를 노린 후세의 픽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정보로 어떻게 시민들이 사건 내막을 그렇게 빨리 알고 거리로 나와 환호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忠臣蔵』이 만들어지면서 「浪人」은 「義士」가 되었고, 明治維新과 전쟁으로 옮겨가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사무라이의 상징처럼 이상화 되었으니, 영웅은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3. 할복(割腹)

(1) 「武士道」와 「하라기리(腹切)」

戦国時代 末期에 일본에 왔던 선교사와 和蘭 사절 등의 많은 기록을 바탕으

9) 三田村篤漁(2010). 『赤穂義士 忠臣蔵の真相』. 河出文庫. p.93-97

10) 山本博文(1996). 『江戸時代を探検する』. 文芸春秋. p.21-22

로, 和蘭의 목사 몬타누스가 기록한 『몬타누스日本誌』가 1669년 암스텔담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곧 독일어, 영어, 불어로 출판되어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읽힌 일본 소개서였는데, 여기에는 「切腹」가 일본의 기이한 풍습으로 소개되었다.¹¹⁾

유럽의 기독교 사상으로 볼 때, 배를 가르고 자살하는 일본인의 풍습은 놀랍고 끔찍하였는데, 일본인은 이러한 죽음을 찬양하였고, 더욱이 배를 가르고 죽으면서 옆에서 자기 목을 쳐주는 「가이샤쿠(介錯)」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切腹」라는 일본인의 自害 풍습을 서양에 또 한 번 널리 알린 것은 「堺事件」이었다. 이것은 1868년 2월 15일 사카이(堺) 지역 경비를 맡았던 土佐藩 병사와 이곳에 상륙하였던 프랑스 水兵이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 때 프랑스 水兵이 난동을 부리자 土佐藩 병사가 발포하여 프랑스 수병 11명이 죽었다. 이에 격노한 프랑스 公使는 明治 신정부에 대하여 土佐藩主의 사죄와 병사 20명의 처형(斬首), 그리고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막부 구정권과 싸우고 있던 明治 신정부는 프랑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어서 土佐藩에 병사 20명의 처형을 명하였다. 土佐藩은 대장 2명 외에 병사들 중에서 추첨으로 18명을 선발하여 할복 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들 20명은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배를 가르기로 작정하여, 2월 23일 堺의 妙国寺에서 프랑스인이 입회한 가운데 집행되었다. 먼저 할복한 장교는 배를 가르고 창자를 프랑스인에게 집어던졌고, 두 번째 할복한 장교의 목이 5m나 날아가는 처참한 광경에 프랑스인들은 새파랗게 질려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원래 프랑스인 입회하에 할복하기로 되었는데, 프랑스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할복이 도중에 중지되었다. 일본은 서양인이 「切腹」을 혐오한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切腹」장면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할복 순서를 기다리던 나머지 병사들은 ‘나라를 위하여 모두 할복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프랑스측이 더 이상 할복을 원하지 않아서 그들은 유배지로 보내졌다. 유배지에서 그들은 좋은 대우를 받으며 지내다가 곧 사면되었다.¹²⁾

19세기 서양에 알려진 일본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야만적인 사무라이 나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야만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新渡戸稲造는 「武士道」는 “일본정신(Bushido, the Soul of Japan)”이라고 ‘홍보(弘報)’하며, 할복(割腹)을 용기 있는 죽음이라고 찬양하

11) 山本博文(2008). 『切腹』. 光文社新書. p.200-201

12) 森鷗外는 이 사건을 『堺事件』(1914)으로 발표하였다. 『堺事件』는 앞의 책(『阿部一族』)에 수록

였다. 新渡戸稲造는 할복은 서양에서도 있었고, “신체 가운데 특히 이 부분을 선택해서 가르는 것은, 그 부분이 영혼과 애정이 깃드는 곳이라는 오래된 해부학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切腹」에서 下腹部를 가른 것은, “영혼과 애정이 깃드는 곳”이었기보다, 동작의 편리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또 新渡戸稲造는 자살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의식하여,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도 자살이라고 하였으나,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전의 문제인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예로 든 것은 強弁에 가깝다.

그러면서 그는 할복이 어떻게 엄숙한 儀式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려고, 막부 말기 영국 주일공사관 서기관 미트폴드(Mitford)가 쓴 『Tales of Old Japan』에서 「神戸事件」의 처벌 장면을 인용하여, “할복이 단순한 자살 수단이 아니며, 할복은 하나의 법제도이며 동시에 의식 전례였다”고 주장하였다. 「神戸事件」은 1868년 1월 神戸 경비를 맡았던 岡山藩 兵士와 영국·프랑스 등의 외국 병사 간에 일어난 발포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서양 세력은 神戸를 점령하고 항구의 배들을 억류하였다. 막부 세력과 싸우며 갓 발족한 明治 신정부는 서양의 위세에 눌려 사과하고, 사과의 표시로 岡山藩士 1명을 서양 검사관이 보는 앞에서 할복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神戸事件」도 「堺事件」과 마찬가지로 엄숙한 ‘의식 전례’에 따라 이루어진 명예로운 할복이었으나, 그것도 사무라이 전통에 따라 집행된 ‘자살로 포장된 사형(斬首)’이었다. 1862년에 영국인 3명을 薩摩藩 사무라이가 殺傷한 「生麦事件」과 1868년의 「神戸事件」·「堺事件」의 할복은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자극하기에 좋은 사건들이었다.¹³⁾

1894년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나,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黃禍論」을 주장하여, 서양은 일본의 약진을 경계하였다. 新渡戸稲造의 『武士道』가 미국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2판을 찍게 되었고, 이어서 각국에서 출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인기는 『武士道』의 내용이 놀라운 것이었다기보다, ‘동양의 小国 일본’이 유럽의 군사대국 러시아를 이긴 데는 「武士道」라는 정신적인 무기가 있었다는 것과 「切腹·刀」와 같은 오리엔탈리즘을 자극하는 내용 때문이었을 것이다.

(2) 할복자살·참수(斬首)

13) 「生麦事件」: 1862년 8월 神奈川の 生麦에서, 領地로 가던 薩摩藩主 행렬을 영국인이 말을 타고 앞지르는 無禮를 범했다고 사무라이들이 영국인 1명을 斬殺하고 2명을 베었다. 막부는 영국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는데 薩摩藩이 범인 처벌에 불응하자 영국 함대 7척이 다음 해 7월 鹿兒島灣으로 들어가 鹿兒島를 포격하였다.(「薩英戦争」) 결국 薩摩藩은 배상금 지불과 범인 처벌을 약속하였고, 이를 계기로 薩摩藩은 근대적 군사력 도입과 開國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원래 할복은 패배한 무사가 적에게 굴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죽는 자살에서 출발하였다. 무사가 전장에서 패배하면 首級은 戰功으로 계산되거나 梟首(梟首)되어 死後에도 수치를 당하였다. 또 적에게 잡힌다는 것은 무사로서 무예가 부족하였다거나 평소에 무사로서 주의가 부족한 「후카쿠(不覺)」를 나타내게 됨으로, 패배한 무사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명예를 지켰다. 그것은 무사의 武勇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광기가 함께 폭발한 죽음 의식이었으나, 중세 『軍記物語』에서 自害하는 무사가 배를 갈라 내장을 뽑아 보이는 장면은 무사의 영웅적인 최후를 부각시키기 위한 후세의 각색이었다.¹⁴⁾

徳川幕府시대에 할복은 무사에게만 허락되는 명예로운 死刑이었다. 徳川家康는 「関ヶ原の戦」에서 승리하고 敵將 石田三成와 小西行長을 京都에서 참수하였으니, 그것은 적장의 마지막 명예마저 허락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복수였다. 전쟁이 없어지고 무사의 의지나 용맹을 과시할 기회가 없어지자, 할복은 무사에 대한 사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할복 이외의 처형은 무사의 신분과 명예를 무시하는 것이었기에 최고의 불명예가 되었다.

막부는 무사의 명예 의식을 형벌에 이용하였고, 무사는 위에서 내리는 판결에 異議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다. 대개 무사들은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신분을 생각하여, 조사나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할복하면’ 막부나 藩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됨으로, 그 죽음은 자연사로 인정되었고 유족의 명예도 보장되었다. 이렇게 할복은 피의자의 명예를 지켜주었으니, 혐의를 받은 무사는 조사나 재판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보다 할복을 택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데 유리하였고, 아울러 이것은 당국에 대한 소리 없는 복수나 반항이 되었다.

할복은 무사의 명예를 보장하였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弓道. 茶道」에 복잡한 절차가 있듯이, 할복도 「道」에 가깝게 준비와 절차가 까다로웠다. 목욕 방법, 머리 모양, 의복, 장소 준비 등 번잡한 예법과 절차가 있었는데, 이런 상세한 예법은 오직 口伝으로만 가르쳤다.

중세의 할복은 일반적으로 「카이샤쿠(介錯)」가 목을 쳐주었는데, 그것도 먼저 본인이 배를 가르른 다음에 하였다. 「카이샤쿠(介錯)」가 목을 쳐주지 않으면 본인은 배를 가르른 것만으로는 곧 숨이 끊어지지 않고 심한 고통에 시달렸기에 고통을 덜어주려고 목을 쳐주었다. 徳川幕府시대에는 스스로 배를 가르른 행동까지 가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칼을 잡고 배에 대는 순간 「카이샤쿠(介錯)」가 옆에서 목을 쳤다. 이 때 할복용 칼도 나무로 만든 모조품이거나

14) 『太平記』 「高時一門の自害」 / 『義経記』 「判官御自害の記」

상징적으로 부채(扇子)를 쓰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부채(扇子)를 쓰는 할복을 「扇子腹」라고 하였다. 「赤穂浪인들의 복수」가 끝난 후 이들은 4명의 大名 저택에 분산 수용되었다. 이들 중 10명은 毛利家에서 할복 의식이 있었는데, 이 때 毛利家에서는 단도처럼 보이게 종이에 싼 부채 10매를 준비하였다. 그것은 연극(芝居)에 나오는 「扇子腹」를 연출하기 위한 준비로, 毛利家는 할복자를 배려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의식을 감독하는 막부 관리의 요구로 진짜 단도로 바꾸었으나, 단도도 칼끝만 약간 남기고 종이로 감은 것이었기에 배를 가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扇子腹」라는 ‘가짜 할복’은 참수(斬首)의 눈속임이었으나 그것도 명예로운 할복으로 인정하였다.¹⁵⁾

徳川幕府시대의 모든 할복이 자살을 가장한 참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중에는 분노와 항의의 할복으로 무사의 명예를 지킨 예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할복이 무사의 명예를 지켜준다는 전통에 따라, 폭력의 미화는 사라지고 죽음만이 남게 되어 의례적인 절차 안에 묻혀 버렸다. 武家 정권인 徳川幕府는 무사의 전통을 완전히 바꿀 수 없었으니, 전통 위에 형식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며 완만한 변화를 이루어 나갔다.

三. 結論

「武士」의 이미지는 과장되었고, 「武士道」의 실체도 歪曲되었다. 「赤穂浪人」의 복수극이 美談처럼 『忠臣蔵』으로 전해지나, 그들이 忠義로 뭉쳐 「赤穂義士」로 꾸며지는 과정에서 무사의 폭력에 과장과 왜곡이 있었다. 이와 같이 순사와 割腹도 「武士道」의 至高한 표현으로 美化되었다.

순사의 의미를 뜻하는 「追腹」·「義腹」·「論腹」에는 순수한 충의가 있었다. 그러다가 자손이 받을 혜택을 계산하여 배를 가르는 「商腹」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徳川幕府가 순사를 금지한 데는 변질되어가는 세상의 알팍한 풍조를 의식하였을 것이다.¹⁶⁾

『阿部一族』에서 阿部の 순사도, 상처받기 쉬운 명예를 싸고도는 무사 사회의 갈등과 사회 풍조를 순사라는 키워드로 나타낸 것으로 본다. 乃木 장군의 순사는, 중세 사무라이를 志向하였던 乃木 장군이 무사답게 죽지 못하고, 무거운 명예를 안고 사는 것에 부담을 느끼다가, 明治 천황을 따라 중세 사무라이처럼 순사하여, 무사의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 하였던 것이

15) 앞의 책, 『赤穂義士 忠臣蔵の真相』.河出文庫. p.161

16) 三田村篤漁. 앞의 책. p.133

아니었을까?

徳川幕府는 무사의 폭력을 제한하였으나, 무사의 명예가 걸린 복수는 금지할 수 없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무사의 존재감은 시들어 갔으나 무사의 명예 문화는 명맥을 유지하였다. 무사의 복수극은 인간 본성을 자극하는 好材였기에, 「赤穂浪人」들의 복수극은 『忠臣蔵』이라는 픽션으로 만들어져 미화되었고, 또한 후세의 로망으로 남게 되었다.

중세 武士의 할복은 명예를 지키려는 용맹의 과시였다. 그러나 徳川幕府시대에 할복은 무사에게만 허용되는 사형으로 바뀌어, 막부는 무사의 명예 의식을 형벌에 이용하였다. 할복은 처형으로 변형되어 참수(斬首)의 형식으로 변하였고, 「扇子腹」라는 참수(斬首)의 변형까지 있었으나, 그것도 명예로운 할복으로 인정받았다.

상처받기 쉬운 무사의 명예를 지켜주던 殉死 · 復讐 · 割腹(切腹)는 무사 폭력의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인식되었으나, 변형된 殉死 · 復讐 · 割腹(切腹)의 이면을 보면, 무사의 전통은 원형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 노재명 역(2006). 『阿部一族』. 북 스토리. p.83
- 최재우 역(1994). 『가신』. 청림출판
- 司馬遼太郎(1967). 『殉死』. 文芸春秋
- 司馬遼太郎(1999). 『坂の上の雲』. 文芸春秋
- 高橋富雄(1986). 『武士道の歴史』二. 新人物往来社. p.139
- 三田村篤漁(2010). 『赤穂義士 忠臣蔵の真相』. 河出文庫. p.93-97, p.133
- 山本博文(1996). 『江戸時代を探検する』. 文芸春秋. p.21-22
- 山本博文(2008). 『切腹』. 光文社新書. p.200-201

要 旨

武士(武士道)のイメージは誇張され、その実体も歪曲された。このように赤穂浪人の仇討ちも美化されて『忠臣蔵』で伝わったが、浪人が「忠義の義士」に変わる過程で武士の復讐には誇張と歪曲が加えられた。殉死を意味する「追腹」, 「義腹」, 「論腹」までは良かったが、子孫が受ける恩恵を計算した「商腹」まで出て、殉死の意味は変わった。『阿部一族』も、殉死をめぐる起きた武士の名誉と葛藤であった。乃木將軍の殉死は、中世の侍を志向した明治の侍が、過分な名誉に悩んだ挙げ句、殉死で不名誉を払い除ける道を探し出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徳川幕府は武士の暴力を制限したが、武士の名誉に関わる仇討ちは禁じられなかった。時代の流れで武士の存在は薄れたが、武士の名誉文化は命脈を保った。武士の仇討ちは人間本性を刺激し、劇的な要素があったので、赤穂浪人の仇討ちは美化されて人々のロマンとして残った。中世の切腹は名誉を守る勇名の誇示だったが、徳川時代には武士の死刑になり、これも変って首切りの変形になった。後には、「扇子腹」という首切りの変形も切腹と認めるようになった。組織の中で毀損されやすい武士の名誉を守って来た殉死、復讐、切腹は、武士の暴力の華やかな花火のように認識されたが、その裏は伝統の原形から変化を辿って来た。

キーワード：『武士道』・『阿部一族』・『忠臣蔵』・赤穂浪人.
乃木將軍の殉死. 復讐. 切腹. 介錯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